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반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누가 우리 팀이 될까?” 정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 친구들이 모두 “나 하고 싶어!” 하면서 손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했어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다투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각 지파 대표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도 함께 회막 안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놀라운 방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는 무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아무 생명도 없는 나무 막대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과 사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살아요!”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말씀봉독 민수기 17:1~13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표징을 보여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2.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총일교회 가정예배부